

‘전남 장애인체전’ 손님 맛을 채비 끝

다음달 3~8일 개최...경기장 시설물 사전점검 최적의 환경 조성 안전매뉴얼 제작 배포·휠체어경사로·안전난간 등 편의시설 완비

전남도가 오는 11월 3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을 앞두고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전남도는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목포종합경기장, 목포반도체육센터, 나주 장애인종합복지관 톨볼경기장, 광양성황스포츠허브수영장 등 3개 시·군 4개 경기장에 대해 1471억원을 들여 신속했다.

또 나주전남사이클경기장, 해남우슬체육관, 영암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등 11개 시·군 20개 경기장을 209억원을 들여 개보수했다.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대회운영본부, 의무실, 심판대기실, 워밍업장 등 부대시설 지원 역시 세심하게 살펴 임시화장실,

가설텐트,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상황 점검으로 최적의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한 시설물 사용을 위해 각 시·군, 장애인체육회, 유관기관 등에 경기장 주요 시설, 증별 비상상황 대피경로 등 내용을 수록한 경기장 안전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했다.

전남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도 휠체어 전도방지턱,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난간 등을 설치했다.

경기장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기장 바닥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관리상황 역시 꼼꼼하게 살펴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예상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했다.

또 비상정전, 조명시설 고장, 늦가를 냉난방기 작동 불량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기 위해 경기장 분야별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경기장 내외부의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리는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점검을 했다. 이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을 해 부족한 점을 보완조치했으며, 9월부터 10월 말까지 최종점검을 실시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선수단과 관람객 입장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최적의 경기 환경을 조성했다"며 "전국체전 성공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체전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8일까지 6일간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광역평생학습도시’ 노하우 공유

전국 첫 시·5개 자치구 모두 지정...다음달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전국 최초로 ‘광역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린 광주시가 노하우를 공유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광역평생학습도시 홍보에 나선다.

2012년부터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평생학습 관련 기관 등이 참가해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전국 최초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 도시이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광역평생학습도시’라는 점을 홍보하고,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관련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개구 모두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광역평생학습도시를 선포했다.

광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포 이후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발전 달성 노력 ▲국가와 지역이슈에 발맞춘 연계협력사업 발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 도모 ▲전 생애의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성장하는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대한민국 평생교육박람회를 통해 ‘광역평생학습도시’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풍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세운다

내년 특별법 시행 앞 연구용역

전남도가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는 에너지로서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배전망 관리 ▲분산에너지 전력계통운영평가 등이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전략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국고사업 발굴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등에 대한 실행방안 구체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

은 지역 등을 특구 형태로 지정해 통합발전소(VPP), 전력거래 특례 등의 혁신제도 실증으로 미래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은 여건을 감안해 법 제정 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추진계획과 특화지역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차별화된 전략을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정의 확대 등 지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과 전력자급률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특화지역 등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미래 산업의 핵심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등 세계적 기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치명인과 김치 담그기 제30회 광주김치축제 개막을 나흘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김치축제 사진 홍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김치명인과 함께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태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 총력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목포 등 10개 위험지역 백신 조기 공급

무안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해 가동하는 등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애초 공급 일정(31일)을 당겨 무안을 포함한 이른바 ‘서해안 벨트’ 10개 위험지역에

29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29일까지 우선 공급하는 한편, 31일 나머지 전 시·군에 공급해 조속히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10개 위험지역은 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이다.

전남도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접종반도 당초보다 64명 늘어난 338명(119개 반)으로

확대하고 자가 집중농가 등에 백신 접종 요령 등을 사전 교육했다. 백신은 근육접종을 하는 구제역 백신과 다르게 반드시 피하에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제조사에 따라 접종 용량(1~2ml)이 다르다.

전남도는 또 무안을 포함해 인근지역인 목포, 나주, 영암, 함평의 소 농장으로 소 생육 반·출입을 금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3주) 전까지는 농장 출입차량·사람 출입통제와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공모

다음달 13일까지 위촉직 18명

광주시는 "11월 13일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직 위원 1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임기는 12월 2일 만료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위원회로, 국가 또는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민간재개발, 자치구 시행사업)에 대해 심의·재결을 맡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와 인원은 교수 3명, 변호사 6명, 감정평가사 6명, 법무사 3명 등 총 4개 분야 18명이다. 위촉된 위원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법학·행정학·부동산학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 응모 희망자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서류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리인드스트리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